

생디칼리즘 연구

김수진

이화여대학교수 정치학

1. 서론

산업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성장 발
현한 조직노동운동은 대체로 노동시
장 영역의 노동조합과 정치 영역의
노동자 정당이라는 양대 조직체계를
확립시켰고, 이 두 조직간의 유기적
인 협력을 통해 노동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
시켜 왔다. 이것은 산업자본주의의
성장을 선도했던 서구의 모든 국가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
까지 예외 없이 확립시켰던 조직 형
태였으며, 이후 미국을 제외한 대부
분의 산업민주국가에 이식되어 왔던
조직 형태이다. 그 결과 자본가를 상
대로 한 노동계급의 투쟁과 협상은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국가기구를 통

한 노동계급 이익의 법률적 정책적
관철은 노동자 정당이 추구하는 역할
분담체계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
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원적 조직체계
의 성장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이념과
실천의 결합물로서 특히 19세기말과
20세기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 노동운동의 강력한
흐름을 형성했던 것이 생디칼리즘
(syndicalism)이었다. 노동계급 이외
의 어떤 사회계급과의 제휴와 협력도
거부하는 배타적 노동자주의, 국가기
구 및 제도화된 정치조직과의 타협과
유착을 거부하는 비(非)정치성 혹은
반(反)정치성, 노동시장과 정치라는
조직활동 공간의 이원화에 대한 원칙
적 거부, 노동계급의 총파업을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근본적 재편같은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이념과 노선을 표방했던 생디칼리즘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들 국가의 노동운동을 폭발적으로 주도하다가 급속히 쇠퇴해 갔다.

이 글은 생디칼리즘이 특히 이들 국가에서 성장했던 원인, 그리고 이 운동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배타적이고 일원적인 노동운동 노선이 지니는 한계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2. 프랑스

(1) 생디칼리즘의 특징

생디칼리즘은 19세기말 프랑스에서 태동한 노동운동 노선으로서, 그 이념적 지향점과 이를 위한 투쟁 및 조직전략의 원형은 이 시기 프랑스 노동운동이 확립시켰다. 당시 프랑스 생디칼리즘이 표방했던 노선은 노동자주의(ouvri risme), 비정치성, 그리고 직접행동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Lorwin, 29~36).

● 생디칼리즘은 노동계급 이외의 어떠한 사회세력과도 제휴하지 않고

노동계급의 배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영역, 모든 목적의 투쟁을 오로지 노동자들만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전개할 것을 표방했다. 특히 생디칼리즘의 노동자주의는 그때까지 프랑스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던 사회주의자들마저 계급적으로 상이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과의 결합을 거부했다. 이 시기 생디칼리즘 노선의 지도자 펠루티에(Fernand Pelloutier)의 말을 빌면, 사회주의자들은 겉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신들만의 문제에 투쟁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해하기만 할뿐이다.(Lorwin, 30~31).

● 생디칼리즘은 의회정치와 정당 정치에 대해 강한 불신감과 거부감을 표출했다. 의회에 진출해 있거나 혹은 의회에 진출하려는 어떠한 정당도 노동계급의 진정한 이익을 대표하려 하지 않고 정당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다양한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려 할 것이며, 이 점은 사회주의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생디칼리즘은 제도화된 정치기구 및 정치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다. 심지어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해서 조직한

사회당과도 공식적인 연대와 협력관계의 형성을 거부했던 것이다.

● 노동자주의와 반정치주의는 생디칼리스트들로 하여금 노동계급의 직접행동을 통한 자본주의체제의 해체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현존하는 국가와 정부를 자본주의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맑스주의적 관점에 동조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은 무엇보다 경제적이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에 의한 직접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회를 통한 정치적 수단보다 모든 노동자들이 가세하는 총파업을 통한 자본주의체제 해체가 가장 궁극적인 투쟁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접행동을 통해 건설되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적 운영단위는 바로 노동조합(syndicat)이 되는데, 이때 '생디카'는 지방경제단위이면서 동시에 행정단위가 된다. 그리고 이 '생디카'의 연합에 의거하여 생산자가 직접 통제·관리하는 산업정부적 사회를 지향했다. 즉, 각 지방 '생디카'와 전국연맹은 생산을 관리·조정하고, 지역노동평의회와 연맹 지부조직이 교환과 분배를 관장하며, 전국

노동조합총연맹(CGT)이 공유화된 재산을 통제·관리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Moss, 146).

따라서 프랑스 생디칼리즘은 본질적으로 혁명적 노선을 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생디칼리스트들의 선언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실천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2) 생디칼리즘 성장의 역사적 배경

로윈(Lorwin)은 프랑스에서 혁명적 생디칼리즘이 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다음 요인들을 지적한다(Lorwin, 36~40).

● 19세기 프랑스 산업자본주의는 대단히 완만하게, 또 산업이 집중된 특정 산업지대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중소규모의 공장이 지배적인 형태로 성장했다. 클랩햄의 표현대로 "프랑스는 결코 산업혁명을 겪지 않았다"(Clapham, 53).¹⁾

Lorwin에 의하면, 프랑스 산업화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의 실질적 과실이 노동자들에게 전환되는 속도가 대단히 느릴 수밖에 없

1) 19세기 프랑스 산업화의 특징과 과정을 특히 독일의 산업화와 대비해서 분석한 연구로서 Clapham(1968)을 참조할 것.

었고, 이것이 프랑스 노동자들로 하여금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선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 이처럼 중소기업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프랑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다분히 억압적이며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이들의 이해 수준 역시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자본가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개선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변혁노선에 경도되도록 이끌었다.

● 프랑스대혁명을 통해서도 결코 완전히 불식시킬 수 없었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평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급진적인 욕구를 강화시켜 주었다.

● 노동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노동자 독자주의(ouvri-risme)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47기 출판 생다름리즘에 큰 영향을 미친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 미하일 바쿠닌.

● 대혁명 이후 19세기말까지 프랑스에서 거의 '일상화'되었던 혁명은 사회변혁의 수단으로서 혁명을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게 하였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자 해방을 위한 파국에 거의 맹신적인 기대감'(Lorwin, 28)²⁾을 갖도록 했다.

● 노동조합 전국조직이 CGT로 통합되었던 1902년까지 사회주의 정

치조적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정당조직의 이와 같은 본질은 정당과 노조간의 유기적 협력체제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했다.



프랑스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친 무정부주의자 피에르 프루동

● 프루동(Pierre Proudhon)의 무정부주의가 노동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로윈의 이러한 설명은 생디칼리즘의 성장 요인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우선 앞의 세 가지 요인들은 19세기 프랑스 노동자들이 왜 혁명적 급진적 이념에 쉽사리 경도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왜 맑스주의 같은 혁명적 계급투쟁 노선이 아니라 생디칼리즘에 경도되었느냐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또 네번째 요인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왜 노동자 독자주의가 프랑스에서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는가이다. 노동자들의 혁명에 대한 맹신, 그리고 무정부주의로의 경도 등도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노동자정당 발전의 지연도 예컨대 영국 노동당이

TUC를 모체로 뒤늦게 조직되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설명력에 한계를 보인다. 결국 로윈이 제시한 요인들이 왜 프랑스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밝혀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급진성과 정치성을 강화시켜 주는 일반적 요인에 관한 기어리의 역사 분석이다(Geary, 52~70). 기어리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의 투쟁이 뚜렷한 한계를 노정할 때,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탄압이 강력하고도 지속적일 때 노동자들은 체제의 근본적인 허파를 투쟁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연장선에서 기어리는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강조하는 생디칼리즘이 프랑스에서 성장했던 것은 프랑스 노동운동의 투쟁 역량이 노동시장 영역에서 극도로 취약했던 데 일차적으로 연유한다고 주장한다(Geary, 53). 사실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단위노조(syndicat)는 대체로 그 조직규모가 2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재정상태 역시 극도로 취약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정상적인 투쟁을 통해 자본가와 싸워 이길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보다 전투

2) 이것은 원래 조제스(Jean Jaurès)의 표현이다.

생디칼리즘은 노동계급 이외의 어떤 사회계급과의 제휴와 협력도 거부하는 배타적 노동자주의, 국가기구 및 제도화된 정치조직과의 타협과 유착을 거부하는 비(非)정치성 혹은 반(反)정치성, 노동시장과 정치라는 조직활동 공간의 이원화에 대한 원칙적 거부, 노동계급의 총파업을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근본적 재편같은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이념과 노선을 표방한다

.....

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들의 분산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총파업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실제 19세기말 이후 프랑스 파업의 양상은 대체로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 때 파업의 물결이 몰아치는 패턴을 보였다. 또 이들의 직접행동은 많은 경우 자본가보다 국가를 겨냥했고 파업은 종종 거리에서의 시위를 병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생디칼리즘이 직접행동의 경제주의를 강조하고 또 비정치성을 강력히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투쟁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생디칼리즘은 무엇보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겪었던 정치적 좌절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생디칼리즘 성장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었다.

1789년 부르주아들이 주도했던 프랑스 대혁명에 가세했던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부르주아들이 한 보답은 소위 르샤플리에(Le Chapelier)법의 제정을 통한 조직화의 봉쇄, 그리고 참정권의 제한이었다. 10년간의 혁명 열기를 진압하고 전제적 통치를 강화했던 나폴레옹 역시 그의 형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조직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후 1830년 7월혁명에 파리의 직인(artisans)들은 또 다시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루이 필립의 7월왕정은 또 다시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염원을 배신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배신감은 1831년, 1834년 리옹(Lyon) 노동자 봉기 및 1832년, 1834년 파리 노동자 봉기 등으로 분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랑스 노동자들은 7월왕정 내내 패배감에 침잠해 있거나, 아니면 블랑키(Auguste Blanqui)가 이끄는 혁명적 비밀결사에 가담하는 등 서서히 급진적 성향에 동조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1848년 2월 부르주아와 합세하여 7월왕정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수립했을 때 노동자들의 기대는 마침내 달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뒤이은 배신과 6월의 무자비한 노동자 학살은 프랑스 대도시의 노동자들을 쓰라린 배신감과 좌절감의 나락으

로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그때까지 군주, 교회, 부르주아, 군대, 농민 등 거의 모든 사회·정치세력으로부터 처절한 배신을 맛보아야 했다. 그 결과 루이 나폴레옹이 제2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이를 제정으로 후퇴시켰을 때 노동자들은 이에 저항하지 않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응대했다. 이미 노동자들에게는 부르주아 공화국이든 제정이든 억압적이며 적대적인 국가체제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또 제2공화국 초기 부르주아와 연대했던 블랑(Louis Blanc)과 같은 사회주의자 역시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익과 무관한 타기의 대상으로 여기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1850~60년대 이들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일체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했던 프루동의 무정부주의였다는 사실은 따라서 자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1871년 파리코뮌과 이것을 진압했던 부르주아 군대에 의해 2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학살되었던 것은 지난 100년 가까이 특히 파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프랑스 노동자들이 전개했던 투쟁과, 또 그와 함께 겪어야 했던 고통과 수난의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Judt; Zeldin; Moss; Magraw).

국가와 정부, 의회와 정당과 선거 등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투쟁을 통해 노동조직이 직접 관리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질서의 확립을 추구했던 프랑스 생디칼리즘은 바로 이와 같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역사적 체험의 산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생디칼리즘의 성장과정

프랑스 노동운동이 본격적 조직화를 시작한 것은 1864년 나폴레옹 Ⅲ세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해 주면서부터였다. 비록 노동자의 단결권은 1884년까지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제국 정부는 1868년 노동자들의 조직활동을 사실상 묵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Lorwin, 11). 그 결과 186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의 조직화는 본격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당시 조직화는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 자리잡은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노조(syndicat)를 결성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때부터 최소한 제1차세계대전 이전 발발할 때까지 프랑스 노동운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숙련공들이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노동운동의 생디칼리스트 경향을 이끌고 나갔던 것이다(Moss, 8~12).

이처럼 대도시 중심의 숙련공들에 의해 조직되었던 '생디카'들이 도시별로

생디칼리스트들은 국가와 정부를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맑스주의적 관점에 동조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은 무엇보다 경제적이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에 의한 직접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연합체를 구성해 나갔던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Moss, 20). 1869년 파리에서 최초로 수평적 지역연합체가 결성된 데 이어 그 이듬해에는 마르세유, 리옹, 루앵 등지에 지역연맹이 결성되었다(Lorwin, 12). 이 시기 제1인터내셔널에 20만 명 이상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가입함으로써 인터내셔널 내 최대 세력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맑스보다 프루동의 이념적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었다.

제3공화정 하에서 1884년 결사의 자유가 정식으로 보장된 2년 후인 1886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연합체가 조직되었지만, 이 조직은 줄 게이드(Jules Guesde)가 영도하는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정파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 사실 19세기를 통틀어 프랑스 조직노동운동은 정치영역과 노동시장 영역간의 명확한 조직적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시기 노동운동을 비정치적이고 노동자 중심적인 생디칼리즘으로 주도해 갔던 중요한 조직이 출현했으나 1886년 파리에서 최초로 조직된 노동평의회(Bourse du Travail)가 그것이다(Moss, 11, 140; Lorwin, 21).

노동평의회는 파리의 거의 모든 '생디카' 조직이 가담한 수평적 지역적 협의체의 성격을 뚜렷이 띠었다. 파리의 뒤를 이어서 주로 남부의 급진적 도시들을 중심으로 평의회는 속속 조직되었고, 1892년 14개 지역의 평의회는 마침내 전국노동평의회(Fédération Nationale des Bourses du Travail)를 조직했다. 전국노동평의회는 노동운동을 사회주의 정파, 특히 게이드가 이끄는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차단시키고, 노동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주체적 투쟁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Moss, 136-42). 1895년 전국노동평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펠루티에(Fernand Pelloutier)는 1901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대단히 정력적으로 평의회를 이끌어 프랑스 노동운동의 주력 조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굳게 다졌다. 1901년 평의회는 65개의 지역평의회에 모두 782개 단위노조가 참여한 조직으로 성장해 있었으며, 총파업, 노동자주의, 비정치주의 등 생디칼리

즘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Lorwin, 21~23).

노동평의회 조직의 활성화에 밀려 게이드의 영향력 하에 있던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체는 1894년 해체되고, 이듬해 이를 대체한 수직적 전국연맹으로 노동조합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이 조직되었다. CGT는 출범 초부터 게이드주의자들과 노동평의회 양측으로부터 배척받는 대단히 취약한 조직으로 연명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1902년 전국노동평의회와 CGT는 조직적 결합을 단행하는데 그 동기 역시 노동조합 조직의 사회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1899년 사회주의자 미예랑(Millerand)이 발텍-루소가 이끄는 부르주아 정부에 가담한 사건이 양대 조직 연합의 계기를 제공했다. 파라이프된 가담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군부지도자들이 각료로 포진해 있던 부르주아 내각에 사회주의자가 참여하는 것을 목격한 CGT 멤버들은 1900년 여태까지의 온건노선을 포기하고 반의회주의·반사회주의·혁명적 총파업노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CGT와 노동평의회는 역사적인 연합이 1902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때부터 10년 동안 프랑스 노동조합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중적 조직구조를 유지했다. CGT라는 큰 조직 내부에 수직적 연맹체와 수평적 평의회가 동일한 세력을 형성하여 공존하며, CGT에 가입한 단위노조는 의무적으로 지역평의회에 가담하게끔 하였다. 소위 “생디칼리즘의 영웅시대”(Moss, 146)로 일컬어지는 이 시기 프랑스 노동운동은 양대 노동세력이 주도한 생디칼리즘 노선이 지배했던 시기였다(Moss, 145~46).

생디칼리즘의 영웅시대는 1902년 양대 조직의 결합으로 열렸지만, 생디칼리즘의 이념적 조직적 기틀은 따라서 1890년대 노동평의회 조직의 성장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평의회와 조직과 함께 이 시기 프랑스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후견으로부터 확고히 독립해서 독립적인 조직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들만의 독자적 조직, 독자적 직접행동을 통해 노동자 조직이 통제·운영하는 사회 경제질서의 혁명적 수립을 표방했던 것이다.

(4) 생디칼리즘의 한계와 쇠퇴

소위 “영웅시대”에 프랑스 노동운동이 거둔 성과는 그다지 영웅적이지 못했다. 이 시기 프랑스 노동조합이 추구했던 파업노선은 노동조직의 성장을 오히려

프랑스 노동조합이 추구했던 파업노선은 노동조직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CGT는 가입 노조들에게 파업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파업의 성공을 위해 조직적 재정적 기여를 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려 저해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Moss, 147). 사실 CGT는 가입 노조들에게 파업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파업의 성공을 위해 조직적 재정적 기여를 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단위 노조의 조합비 징수 실적은 극도로 부진했을 뿐 아니라 조직규모 역시 극도로 영세한 규모가 지속되고 있었다(Moss, 147). 그 결과 1904~06년 CGT가 주도했던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CGT는 이 투쟁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었던 도덕적 승리였다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이때의 파격한 투쟁은 1906~10년까지 부르주아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초래했다. 부르주아 정부는 빈번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파업노동자들을 진압했으며, 수많은 노조지도자들을 반역죄 명목으로 체포했고, 또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을 징집하는 등 다양한 탄압수단을 동원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탄압에 분명 영웅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조직력의 신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었다(Moss, 148).

사실 이 무렵 CGT는 수적으로 프랑스 노동자의 극히 일부만을 대표하고 있었다. 1906년 CGT에 가입해 있던 약 20만 명의 노동자는 이 시기 전체 산업 노동자의 3%를 밑도는 숫자였다. 1912년 가입 노동자 수효는 4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이 역시 전체 조직노동자들의 과반수가 못 되는 규모였다. 즉,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사주에 의해 조직된 황색노동조합 혹은 기독교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Moss, 149~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디칼리즘과 CGT가 프랑스의 자주적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유일한 조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시기 프랑스 노동운동을 CGT와 생디칼리즘이 대표했다는 사실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미 CGT 외곽에서 개량주의적 저류는 대단히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었다(Lorwin, 43~46). 이 흐름은 1900년 이후 프랑스 산업계에 새로운 노동자들의 수효가 급증하고, 또 이들이 CGT 조직 내부에서도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발을 맞추었다. 즉, 지금까지의 조직노동운동은 대도시에 포진해 있던

전통적 숙련공들이 주축이 되어 왔으나, 1900년 이후 보다 큰 규모의 광업, 제조업, 운수업, 섬유산업, 부두, 항만, 철도, 화학, 식품 등 현대적 특징을 띤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또 이들이 본격적으로 CGT에 가담하기 시작했다(Moss, 151). 이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단체협상, 정부와 의회가 주도하는 입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그 결과 1905년 조직 통합을 완료한 프랑스 사회당(SFIO)과의 제휴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CGT의 총파업 노선에 갈수록 거부감을 키웠고, 또 CGT의 반군사주의, 반국가주의 경향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들 중 특히 인쇄, 섬유, 철도, 탄광노조들은 CGT의 중추조직으로 성장해 가면서 생디칼리즘보다는 개량주의적 성향을 갈수록 강화시켜 갔다. 따라서 비록 생디칼리즘은 CGT의 공식적 지도노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1908년 이후 CGT 안에서 혁명적 생디칼리즘과 개량주의간의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세계대전 발발을 몇 년 앞둔 시점에는 생디칼리즘의 퇴조가 이미 확인됐다(Lorwin, 44~45).

1909년 CGT의 새 리더로 올라서서 이후 40년간 이 조직을 이끌어 간 레옹 주호(L on Jouhaux)는 “개량주의적 실천과 조직, 그리고 혁명적 목표 사이의 균형”(Moss, 149)을 도모했으나, 사실상 그의 리더십 하에서 CGT는 개량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켜 갔다. 1906년 파업 실패 후 총파업 노선에 부합하는 규모의 파업은 기껏 1910년 철도파업을 꼽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정부에 의해 손쉽게 진압되고 말았다(Lorwin, 45). 이 파업의 실패는 급진적 리더들로 하여금 총파업의 단기적 실현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함으로써 생디칼리즘 노선을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몰고 갔다(Moss, 152-53). 그리고 생디칼리즘의 쇠퇴는 1912년 CGT가 마침내 노동평의회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이것을 CGT의 지부조직(unions d partmentales)으로 대체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보다 확인해졌다(Lorwin, 24).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CGT가 1890년대 이후 구축해 왔던 이념체계를 순식간에 붕괴시켜버렸다.

여타 모든 참전국가의 노동운동이 그러했고, 또 그에 따라 제1인터내셔널이 그토록 열렬히 표방했던 노동자 국제주의가 제국주의적 국가주의 앞에 무참히 무릎을 꿇었듯이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프랑스 국민들과 다름없는 애국심으로 전쟁에 대응했다.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역시 다른 대부분 국가의 노동운동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대응해 갔다. 전쟁의 참화,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러시아혁명의 발발과 함께 제1차세계대전 직후 모든 유럽

총파업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획일적 투쟁노선은 실용적인 협상과 투쟁을 통한 개혁 모두를 거부하는 극도의 비합리성을 보였다. 그 결과 생디칼리즘은 노동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는 것을 저해했으며, 프랑스 노동운동이 정당과 노동조합이라는 양대 조직으로 병립해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체시켰다.

.....

을 휩쓸었던 혁명적 기운은 전쟁 직후 CGT로 하여금 생디칼리즘 노선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도록 했으나, 이와 같은 급진적 기운은 오히려 프랑스에서 퇴조의 기운이 빨랐고(Maier, passim), 특히 1920년 총파업 이후 CGT는 결정적으로 개량주의적 노선으로 돌아섰다(Lorwin, 54~55). 그러나 1920년 프랑스 사회당이 제3인터내셔널의 방침에 추종하여 프랑스 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CGT 내부는 다시 노선투쟁에 휩싸였다. 그 결과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생디칼리즘을 표방하는 다양한 급진세력들은 마침내 CGT를 이탈해서 CGTU라는 독자적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리고 CGTU는 오래지 않아 공산당의 완전한 통제 하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CGTU 안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생디칼리스트들은 생디칼리즘 원래의 운동노선을 완전히 상실했다(Lorwin, 55~60).

프랑스의 혁명적 생디칼리즘은 대혁명 이후 약 100년 동안 프랑스 노동자들이 겪었던 정치적 시련과 좌절의 산물로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프랑스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대표했다. 총파업에 대한 과도한 맹신에서 비롯된 획일적 투쟁노선은 노동시장에서의 실용적인 협상과 정치영역에서의 협상과 투쟁을 통한 개혁 모두를 거부하는 극도의 비합리성을 보였다. 그 결과 생디칼리즘은 노동운동의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는 것을 사실상 저해했으며, 또 프랑스 노동운동이 정당과 노동조합이라는 양대 조직으로 병립해서 서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상당한 기간 지체시켰다. 그때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노동조합이 서구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조직률을 보여 온 것은 초기 노동운동 노선의 비현실성을 완전히 극복해 내지 못한 탓인지도 모른다. 반면 조직력 면에서 비록 취약해 보이지만 역사의 특정국면에서 대단히 격렬하고도 전투적인 계급단합 역량과 투쟁력을 과시하는 프랑스 노동운동의 독특한 특징 역시 위대한 '혁명의 시대'로부터 '생디칼리즘의 시대'로 이어져

왔던 혁명적 전통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3. 이탈리아

(1) 역사적 배경

20세기 초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급진적 흐름을 주도했던 생디칼리즘은 1860~70년대 분출했던 무정부주의, 1880년대 이탈리아노동당(Partito Operaio Italiano; POI)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노동자주의(*operaismo*), 그리고 1890년대 조직되기 시작했던 노동평의회(Camera del Lavoro)의 운동 노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러시아 태생 바쿠닌(Michael Bakunin)의 영향력 하에 확산되었던 무정부주의 운동은 이탈리아 노동자들을 혁명적 봉기로 동원하려 했던 최초의 진지한 노력이었다. 1860년대 말 “배반당한 통일혁명”에 대한 좌절감이 통일 직후의 이탈리아 사회를 휩쓸고 지나갈 무렵 무정부주의는 주로 중산층 지식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추종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무정부주의 역시 이 운동이 어느 정도 흥미했던 다른 국가들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前)산업적 특성을 뚜렷이 드러내었다. 무정부주의는 이탈리아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북부 도시에서 거점을 구축하는 데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중부와 남부 이탈리아에서 강세를 보였다. 1870년대 말 이탈리아 산업화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무렵 무정부주의 운동은 소멸되어 갔다(Hostetter, *passim*.; Horowitz, 17~23; Neufeld, 91~104).

이탈리아 최초의 노동자 정치조직으로서 최대 산업도시 밀라노에서 출범한 POI는 출범 초부터 노동자 독자주의(*operaismo*)를 강력하게 표방했다. POI의 노동자주의 역시 이탈리아 통일 이후 국가를 장악 통치하고 있던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이 노동자들의 이익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자각한 노동자들의 정치적 대응이었다. 부르주아 정치세력은 노동자들을 쓸모 없는 공허한 이념으로 현혹해서 노동자들의 힘을 마비시키고, 노동운동을 분열시켜서, 노동계급을 특권계급의 영속적인 노예상태로 묶어두려는 목표 이외에 다른 의도를 갖지 않고 있다고 POI는 간주했다. 따라서 부르주아 정치세력과의 제휴와 협력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직 노동자들만으로 조직된 정치조직을 통한 독자적 계급투쟁 노선을 POI는 표방했던 것이다(Hembree,

23~30). 이와 같은 목표로 1882년 출범한 POI는 1885년까지 롬바르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21개 도시에 걸친 조직망을 구축해 내었다(Hembree, 37~46).

그러나 POI의 급속한 세력확산은 디프레티스(Depretis)가 이끌던 자유주의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초래했다((Neufeld, 115ff.). 국가의 탄압은 POI 내에 공존하던 경제주의와 정치주의의 두 가지 흐름을 조직적으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즉, POI 내에서 노동자 독자노선을 표방하되 POI가 보다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보았던 세력들은 그들의 지도자 라자리(Costantino Lazzari)의 주도 하에 당시 밀라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던 투라티(Filippo Turati)가 이끄는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하여 1892년 이탈리아 사회당을 출범시켰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사회당은 노동자주의(operaismo)와 사회주의(socialismo)의 불안정한 결합체로서 출범했는데, 이것은 이후 사회당 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노선투쟁의 근원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Miller, 11~25).



한편 POI 내에서 경제주의에 입각한 활동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노동시장 조직의 지역적 결합체인 노동평의회(Camera del Lavoro)를 조직함으로써 경제투쟁의 강력한 조직적 기틀을 구축했다. 1891년 밀라노에서 최초로 조직된 노동평의회는 1893년에는 12개 지역평의회를 결합시킨 전국연합체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했다(Judson, 5~7). 노동평의회는 오직 노동계급만으로 구성되는 독자적 노동조직으로서 비(非)정치주의(apoliticism)를 조직활동의 기본원리로 설정했다(Judson, 185ff.). 평의회는 애초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방법과 역량을 키워주는 조직체로서 활동했다. 그러다가 조직 규모가 성장해 감에 따라 평의회는 파업을 조직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선전 기능을 강화시켜갔다. 다양한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을 망라한 지역조직으로서 평의회는 자본가를 상대로 하는 노동시장의 협상에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평

의회가 주도하는 활동과 투쟁은 갈수록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전투적 급진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평의회의 이와 같은 경향은 혁명적 생디칼리즘과의 친근성을 자연스럽게 강화해나갔던 것이다(Miller, 68).

(2) 생디칼리즘의 성장

이탈리아 노동운동에 혁명적 생디칼리즘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념적 조직적 조건은 이처럼 1890년대에 이미 갖추어졌다. 1860~70년대 무정부주의가 확산시켰던 혁명적 봉기 노선, 1880년대 POI가 강력하게 표방했던 노동자주의(*operaismo*), 그리고 1890년대 노동평의회(*Camera del Lavoro*) 조직 내에서 강화되어 갔던 전투적 파업노선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이와 같은 잠재력을 1900년대 노동운동의 확고한 흐름으로 전환시켜 주었던 것은 바로 1890년대 크리스피(*Crispi*)로부터 루디니(*Di Rudini*), 펠루스(*Pelloux*)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정부가 전개했던 사회당과 노동운동 조직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이처럼 “억압과 투옥과 순교로 점철된 영웅시대”(Neufeld, 204)를 거치면서 계급성과 급진성을 대폭 강화시켰고, 노동운동의 이와 같은 급진성을 정당과 노동시장 조직 양쪽에서 견인해 나갔던 것이 바로 혁명적 생디칼리즘이었다.

이탈리아 생디칼리즘은 프랑스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정당 안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생디칼리스트들은 이탈리아 사회당(PSI) 급진세력의 주축을 형성해서 개량주의 세력과 치열한 노선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들은 선거와 의회주의를 통한 개혁을 거부하고, 부르주아 세력과의 타협 노선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급을 총파업을 통한 혁명적 체제 전복 투쟁으로 이끌기 위한 선동과 투쟁 노선을 표방했다(Miller, 56-57).

이탈리아 생디칼리즘의 이와 같은 정치투쟁을 주도했던 인물은 나폴리 출신 사회주의자 라브리올라(*Arturo Labriola*)였다. 1898년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그는 2년간의 망명생활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내면서 생디칼리즘으로 이념적 실천적 무장을 한 다음 1900년 PSI로 복귀했다(Miller, 56~57). 1901년 라브리올라는 당내 급진세력의 다른 한 축을 대표하고 있었던 POI 출신 라자리(*Lazzari*)와 연대해서 이탈리아 산업의 중심지이자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중심지이며, 또 사회당 개량주의 지도자 투라티의 오랜 거점인 밀라노로 바로 진입하여 개량주의와 정면 대결을 개시했다. 라브리올라는 이어

이탈리아 생디칼리즘은 정당 안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생디칼리스트들은 이탈리아 사회당(PSI) 급진세력의 주축을 형성해서 치열한 노선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들은 선거와 의회주의를 통한 개혁을 거부하고, 부르주아 세력과의 타협 노선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급을 총파업을 통한 혁명적 체제 전복 투쟁으로 이끌기 위한 선동과 투쟁 노선을 표방했다



서 파르마, 파두아, 베르가모, 제노아 등 롬바르디아 일대 전역과 포(Po) 계곡 일대의 전투적 농업노동조직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그 세력기반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1904년 PSI의 롬바르디아 지역 전당대회에서 생디칼리스트를 주축으로 한 급진세력은 개량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지역 투쟁 노선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연이어 볼로냐에서 개최된 전국 전당대회에서도 개량주의 세력을 압도했다(Hembree, 194~212).

생디칼리즘이 1900년대 초 이처럼 신속하게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던 급진적 계급의식 때문이었고, 또 그것은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이 겪어야 했던 자유주의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의 결과물이었다. 1899년 268회에 머물렀던 파업은 1900년 410회, 그리고 1901년에 1,671회로 급증했다(Neufeld, 547). 노동평의회 조직 역시 1900년부터 1905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 주었다. 자유주의 정부의 탄압에 의해 불과 4개의 지역 조직만 살아 남았던 평의회는 5년 사이에 82개 지역 조직과 32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거느린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Judson, 7). 이처럼 강력한 조직력을 구축한 평의회는 생디칼리스트 투쟁의 대중적 조직기반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1900년대 초 생디칼리스트들이 주도한 파업의 열기가 이처럼 급속하게 달아오르자 이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의 대응 역시 점차 폭력적 억압적 양상을 띠었다. 그에 따라 파업의 성공률은 급속히 낮아졌으며, 1902년 이후부터 파업의 빈도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파업의 전투적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1903년 이후 파업은 그 정치적 성격을 뚜렷이 했고, 또 총파업 역시 빈번해졌다(Miller, 68). 1900년 제노아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지역적 총파업은 1902년부터 1904년 사이에 토리노, 피렌체, 로마 등 중북부 대도시에서 연이어 터져 나왔고 마침내 1904년 전국적 총파업으로 이어졌다(Seton-

Watson, 237ff.).

1904년 전국적 총파업은 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생디칼리스트 투쟁의 절정을 의미했다. 이해 9월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에서 일어났던 노동자 파업이 군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는 소식에 접한 밀라노의 생디칼리스트 노동자들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파업의 열기는 순식간에 북부 이탈리아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거쳐서 중남부 이탈리아까지 확산되었다. 그 결과 전국 철도망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특히 밀라노는 4일간 사실상 이 지역 노동평의회에 의해 완전 장악되었다. 그러나 총파업은 수상 지올리티(Giolitti)의 노련한 지연 전술에 휘말려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자유주의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적 파업에 돌입했던 생디칼리스트 지도자들은 파업과 시위를 통한 지올리티의 퇴진 요구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열기가 식어 갔던 파업은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막을 내리고 말았다(Seton-Watson, 244-45; Miller, 69).

(3) 생디칼리즘의 쇠퇴

1904년 총파업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1900년 이후 세력과 조직을 공세적으로 확대해 가던 사회당은 이때부터 부르주아 정치 세력의 일대 반격에 의해 수세로 돌아섰다. 사회당 내에서 전개되었던 노선투쟁 역시 개량주의가 당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국면으로 반전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북부 산업지대의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전투적 투쟁에 탈진하고 식상한 데 따른 결과였다. 그에 따라 사회당 내에서 생디칼리즘의 입지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1906년 로마 전당대회에서 개량주의자의 승리가 확실해진 지 8개월 후 라브리올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마침내 사회당을 탈퇴했다(Miller, 70~73). 사회당 내 정치운동으로서 생디칼리즘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급진세력과 개량주의 세력간의 노선투쟁은 생디칼리스트들이 탈퇴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급진세력을 이끄는 집단은 이제 더 이상 생디칼리즘의 추종자들은 아니었다.

노동시장 영역에서 역시 생디칼리즘의 쇠퇴는 완연했다. 1906년 조직된 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CGL)은 리골라(Ronald Rigola)의 영도 하에 개량주의적 노선을 갈수록 강화시키면서 특히 북부산업지대에서 노동평의회가 장악

생디칼리즘은 노동계급의 결속력을 저해하기만 할 뿐 노동운동 전체를 위해 어떤 긍정적인 기여도 하지 못했다. 이탈리아 생디칼리즘과 무솔리니와의 제휴가 갈수록 강화되었고, 생디칼리즘은 결국 파시스트 정권의 수립과 운영에 지원세력으로 전락해 갔다

.....

하고 있던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탈취하기 위해 맹렬히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Seton-Watson, 299~300). 그 결과 생디칼리즘의 조직기반은 급속히 농촌지역으로 이동했다. 토리노, 밀라노, 제노아를 연결한 이탈리아 산업의 삼각지대에 조직기반을 두었던 생디칼리즘은 이 지역 급진운동의 주도권을 혁명적 급진파에게 넘겨 주고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동부의 농촌지대로 그 거점을 옮겨갔다. 1907년 페라라(Ferrara) 농업노동자 파업, 1908년 파르마(Parma) 농업노동자 파업 등은 이 지역 노동평의회를 장악한 생디칼리스트들이 주도한 농촌 파업이었다. 이 파업들은 생디칼리즘이 완전히 퇴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해 준 사건이었지만, 반면 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생디칼리스트 투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것을 뜻했다(Seton-Watson, 267-69; Miler, 72). 세튼-와슨의 표현처럼, "생디칼리즘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지만 다시는 지배적인 지위로 복귀하지 못했다." (Seton-Watson 269)

하지만 생디칼리즘이 이처럼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었다. 생디칼리즘은 노동계급의 결속력을 저해하기만 할 뿐 노동운동 전체를 위해 어떤 긍정적인 기여도 하지 못했다(Seton-Watson, 301). 무엇보다 비극적이었던 것은 이탈리아 생디칼리즘과 무솔리니와의 제휴가 갈수록 강화되었고, 생디칼리즘은 결국 파시스트 정권의 수립과 운영에 지원세력으로 전락해 갔다는 사실일 것이다.

CGL이 개량주의 노선을 강화시키고 북부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자 생디칼리스트들은 1912년 파르마를 거점으로 이탈리아 생디칼리스트 노동조합(USI)이라는 대항조직을 만들었다. USI는 CGL이 구축해 나갔던 수직적 일관조직체계를 거부하고 지역단위 노동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조직체계를 고수했다. USI의 세력 기반은 에밀리아 로마냐 농업지대의 저임금 농업노동자들이었으며, 여기에 철도노동자들과 제노아의 부두노동자들이 주요

세력으로 가세했다(Seton-Watson, 300~301).

1911년 지올리타 정부가 벌였던 리비아 전쟁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또 다시 급진세력의 상승곡면으로 반전시키자, 생디칼리스트들은 또 한 번의 세력확장 기회를 맞았다. USI는 1913년 페라라에서 이탈리아 노동운동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길었던 농업노동자 파업을 주도했다. 같은 해 밀라노에서 생디칼리스트들이 두 차례의 총파업을 일으키자 사회당과 CGL은 그 무모함을 통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이때 사회당 내 급진세력의 젊은 리더로서 당 기관지 전진(Avanti!)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던 무솔리니는 공개적으로 USI의 총파업 노선을 지지하고 나섰다. 무솔리니와 생디칼리스트들과의 제휴는 이때부터 강화되어 그가 급진좌파로부터 극우 파시스트로 대변산을 한 이후까지 지속되었다(Miller, 176ff.; Seton-Watson, 386ff.).

1914년 일차대전이 발발하자 1907년부터 1913년까지 포(Po) 계곡 농업지대에서 농업노동자 파업을 주도했던 USI의 대표적 지도자들은 평화주의, 불개입주의를 고수했던 USI를 탈퇴하고 일차대전예의 적극적인 참전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노동조직 UIL을 결성했다. 무솔리니 역시 같은 시기에 적극적 참전을 주장하면서 극우 파시스트로의 변신을 시작했다(Seton-Watson, 422~423). 전쟁에 관해 이처럼 무솔리니와 견해를 같이 했던 소위 “애국적 생디칼리스트”들은 전쟁 이후 파시스트의 성장과 정권 장악을 돕고 또 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파시스트 노동조직 구축의 앞잡이라는 악역을 맡아야 했던 것이다(Seton-Watson, 516~518, 573~574, 595~596, 639~640, 663~664).

4. 결론

19세기말과 20세기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노동운동을 품어왔던 생디칼리즘은 무엇보다 국가와 자본가에 대한 노동계급의 강한 불신과 거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고통받았던 쓰라린 경험이, 그리고 어떤 사회세력도 결코 자신들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고립감이 양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회정치세력과의 제휴도 거부하는 노동자 독자주의 노선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그 연장선에서 사회주의와 정치적 노동운동의 획일적인 결합을 또한 거부했으며, 의회와 정당으로 대표되는 제

총파업에 대한 생디칼리스트들의 맹신은 노동시장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고 의회주의 절차에 의해 노동자의 법률적 정책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노선이 노동자들의 폭넓고 안정된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

도권 정치를 배격했다.

그러나 비(非)정치주의 혹은 반(反)정치주의가 생디칼리즘 운동 내에서 구체화되는 방식은 두 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보였다. 즉, 프랑스의 경우 생디칼리스트들은 사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의 제휴와 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의회주의 절차에 의한 체제변혁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따라서 생디칼리즘을 표방했던 CGT와 사회주의 노선을 택했던 SFIO는 20세기 초 각각 독자적인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 갔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스트들은 사회당 내에 진입해서 개량주의 세력과 치열한 노선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또 의회에도 진출했지만 이들은 이와 같은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근본적인 체제변혁을 이룰 수 있다고 결코 믿지 않았다. 생디칼리스트들은 단지 이와 같은 제도적 기구들을 노동계급 선동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르주아 정부 정당과 철두철미한 비타협 비협조 노선을 강조하면서 노동계급의 총파업을 성공적 체제변혁으로 이끌기 위한 투쟁과 선동역량의 배양에 열중했다.

결국 정당조직을 통해 투쟁을 했던 아니면 노동시장 조직에서 투쟁을 했던 생디칼리스트들의 투쟁목표와 투쟁방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즉, 노동계급의 직접행동에 의한 체제의 붕괴가 이들의 투쟁목표였고 총파업은 궁극적 투쟁수단이었다. 총파업에 대한 이들의 신화적 맹신은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려는 노력과 의회주의 절차에 의해 노동자의 법률적 정책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노력 모두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노선이 노동자들의 폭넓고 안정된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 결과 생디칼리즘은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노선으로서 보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1차세계대전 이후 의회민주정치의 확립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소멸되어갔다. 결국 노동자 독자노선을 표방한 단일 노

동조직에 의한 단선적인 투쟁보다 노동시장 영역과 정치 영역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가 훨씬 효과적인 노동조직 방식임을 생디칼리즘의 실패가 입증해 주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프랑스 생디칼리즘이 궁극적으로 소비에트 통제 하의 제3인터내셔널에 복속해 들어가고, 또 이탈리아 생디칼리즘은 파시스트체제에 굴복해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생디칼리즘은 민주적 노동운동이 추구할 만한 노선으로서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것이다. 양국 생디칼리즘의 파국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책적 조직적 역량과 정치경제적 상황을 무시한 채 무모하게 추구하는 노동자 독자노선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참고 문헌

- Clapham, J.H.,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and Germany 1815-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Geary, Dick, *European Labour Protest 1848-1939* (London: Methuen, 1981).
- Gerschenkron, Alexander, "Notes on the Rate of Industrial Growth in Italy, 1881-1913," in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Hembree, Michael, "The Politics of Intransigence: Costantino Lazzari and the Italian Socialist Left, 1882-1919," (Ph.D. Dissertation: The Florida University, 1981).
- Horowitz, Daniel, *The Italian Labor Move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63).
- Hostetter, Richard, *The Italian Socialist Movement, I. Origins (1860-1882)* (New York: Van Nostrand, 1958).
- Judson, Kirkland, "The Italian Chambers of Labor, 1890-1914: The Formation of Working Class Consciousnes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6).
- Lorwin, Vai, *The French Labor Move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 Magraw, Roger, *France 1815-1914: The Bourgeois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Miller, James, *From Elite to Mass Politics: Italian Socialism in the Giolittian Era, 1900-1914* (Kent: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0).
- Moss, Bernard, *The Origins of the French Labor Movement: The Socialism of Skilled Workers, 1830-191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 Neufeld, Maurice, *Italy: School for Awakening Countries* (Ithaca: Cayuga Press, 1961).
- Seton-Watson, Christopher, *Italy from Liberalism to Fascism 1870-1925* (London: Methuen, 1967).
- Zeldin, Theodore, *France 1848-1945: Politics and Ang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9).